



[마켓]  
김태오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진출  
모범사례 꼽혀  
08

[유통]  
‘화이트데이’  
백화점은 압세서리  
편의점은 젤리  
L1



# 주거환경 개선·연탄나눔·소외계층 아동 교육… ‘봉선화’의 나눔, 사회 곳곳에 희망꽃 피운다

&lt;봉사·선행·화합&gt;



⑪ 현대차증권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2월 금융투자회사의 브랜드평판지수를 발표했다. 브랜드평판지수 상위권은 대부분 자기자본 10위권 이내의 대형사가 차지했지만 세분화된 지표에서는 순위가 달랐다. 이 중 증권사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접수를 매긴 ‘사회공헌지수’에서 눈에 띠는 회사가 하나 있었다. 자기자본금 15위의 중소형 증권사인 ‘현대차증권’이다. 현대차증권은 자기자본 5위의 한국투자증권과 8위의 하나금융투자를 이어 사회공헌지수에서 3위를 차지했다.

현대차증권이 단순한 기부나 후원에 그치지 않고 두 손으로 집 짓고, 연탄을 나르고 아이들을 교육하며 직접 참여한다. 규모에 비해 높은 사회공헌지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임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기 때문이다.

## ◆ 사내 봉사활동 모임 ‘봉선화’

현대차증권은 사내 봉사활동 모임인 ‘봉선화’를 중심으로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선화는 ‘봉’사를 통해 ‘선’을 추구하고 ‘화’합하는 모임이라는 의미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한 모임으로써 회사 차원에서도 봉선화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회사측과 봉사활동 모임 봉선화를 양축으로 ▲회사 기부 ▲임직원 끝전 기부 ▲금융투자인 마라톤대회 ▲현대차증권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경제교육’ ▲사랑의 김치 Fair ▲성동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사랑 나눔 바자회 ▲희망의 집 고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등 활동을 매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현대차증권은 2015년부터 매년 해비타트 주관으로 ‘희망의 집 고치기’ 활동을 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희망의 집 고치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8년에는 10월경 현대차증권 임직원 20명이 참여해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했다. 장판과 샤시 등을 교체하고 도배를 새로 하는 등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가정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썼다.

아울러 2012년부터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현대차증권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 가정 겨울철 난방지원을 위해 연탄을 기부하고 배달한다. 매년 지역 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연탄을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저소득층 가정에 총 1200장을의 연탄을 후원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장애 가정 등 활동 대상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찾아가는 경제교육’ 등…교육에도 힘써

현대차증권은 지난해부터 보육원이나 고



지난해 11월 28일 현대차증권 임직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임직원들이 찾아가는 경제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임직원들이 사랑의 김치 Fair에 참여했다.

/현대차증권

임직원들 자발적으로 봉사모임 참여  
연탄나눔·바자회 등 매년 활동 이어가보육원등 시설 아동·청소년 위해  
찾아가는 경제교육… 자립심 키워누리사랑 복지센터와 기부금 전달  
김지 Fair 참가해 소외이웃과 나눠

아원 등 시설 아동·청소년을 돋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열었다.

한국 아동복지협회 주관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지원으로 시작된 ‘현대차증권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경제교육’은 아이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현대차증권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소속 시설 32개소의 아동 및 청소년 36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시설 아이들이 퇴소 이후 다양한 경제생활에 대비하고 미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성동 좋은 이웃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봉사활동이 이어오고 있다. 매년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성동 좋은 이웃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 및 편부모 가정 등 불우이웃 자녀들과 함께 각종 문화체험을 하며 아이들의 교육을 돋운다. 지난해에는 굿네이버스 산하 결연기관인 성동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독공 체험,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했다.

## ◆ 누리 사랑 복지센터와 기부금·바자회

현대차증권은 2014년부터 누리 사랑 복지센터와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고 바자회도 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연중 월 1회 회사 이름으로 누리 사랑 복지센터와 굿네이버스에 기부금을 전달한다. 아울러 기부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급여 끝전을 모아 ‘임직원 끝전 기부’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사랑의 나눔 바자회도 연다. 현대차증권은 독거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누리 사랑 복지센터와 함께 매년 사랑 나눔 바자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사랑 나눔 바자회에도 기부금 후원과 임직원 참여를 통해 바자회 수익금 기부와 물품의 재사용으로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다.

현대차증권은 금융투자협회와도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매년 금융투자협회 주관 사랑의 김치 Fair에 참가해 타 금융투자회사들과 함께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2017년에도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의 결손가정, 저소득층 가구, 독거노인 및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에게 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기부금도 후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다.

현대차증권은 2012년부터 꾸준히 금융투자인 마라톤대회인 Bulls Race 참가해 마라톤 개최 기념 지역아동센터 교육환경개선 캠페인 기부금을 모았다. 지난해에도 ‘2018 Bulls Race’ 개최를 기념해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기부금 전달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작지만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헌 활동들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지난해 9월 22일 현대차증권 임직원들이 사랑 나눔 바자회를 하고 있다.